



전북농협, 2026년 고추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지난 21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고추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추전북협의회는 고추 주산지 농협 조합장 1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북 고추 산업의 생산과 유통 안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장은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고추 재배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공유됐으며,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수급 불안 시 수매 비축과 출하 시기 조절 등 단계별 수급 안정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조리실습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0일 '건강라인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리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리실습은 버섯을 활용한 '버섯크림리조프' 만들기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저염 조리 방법과 건강한 식재료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조리에 참여하며 건강식 조리 과정을 체험했다. 일상생활 속 건강한 식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랑요양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생명 구해

지난 19일, 사랑요양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원장 김봉규)에서는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인 이모 어르신은 평소 화관에 자주 나오시는 어르신이다. 어느날 화관에 방문하지 않아 가정 방문하니 어르신이 방 안에서 기운 없이 누워 있어 생활지원사는 즉시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신속 이송 조치했다. 어르신은 뇌출혈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곧바로 응급수술이 진행됐다. 이번 사례는 생활지원사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세심한 현장 대응이 아니었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 여성새일센터, 미니채용·창업 박람회

취·창업 지원 부스 운영... 일자리 정책 정보 제공·구인 구직 매칭 시스템 선보여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는 지난 22일, 평생학습관 별관에서 여성 구직자 및 직업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일 미니채용·창업 박람회를 진행했다. '다시 일하는 기쁨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도약하려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채용면접관, 컨설팅관 및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행사를 넘어, 지역 고용 유관기관 및 타 새일센터 간의 촘촘한 연대로 다양한 취·창업 지원 부스를 통해 일자리 정책 정보와 폭넓은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을 선보이며 한층 강화된 여성 취업 지원 체계를 증명해 보였다. 채용면접관에서는 서남주간보호센터 외 지역 내 우수 기업 4개 업체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1:1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뜨거운 구직 열기를 이어갔으며, 이외에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기업체의 상세한 구인 정보를 담은 채용 게시판이 운영되어 구직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컨설팅관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원시 기업정책과 일자리팀, 퀵스타트 사업단이 참여해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와 면접 수단 제도 안내는 물론, 타 새일센터와 협업하여 경력단절예방 공동 캠페인을 비롯해 장



업 탐색 및 컨설팅, 전문 노무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구직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부대행사로 구직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지문 인식 진로·적성검사와 무료 증명사진 촬영, 박람회 현장의 긴장감을 낮추고 흥미를 유도하는 취업 타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지역 여성들에게는 당당한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고 구인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상생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전주 달리는 택시 100대에 고향 명소 광고

정읍시가 전주에서 운행하는 향우회 소속 개인택시 100대에 지역 명소를 알리는 전면 부착(와이드 래핑) 광고 설치를 마쳤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택시 511대 전체를 대상으로 명소 광고 부착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본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 소속 기사들이 "우리가 전주 시내에서 고향을 홍보하는 발이 되겠다"며 정읍시에 광고 부착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택시 511대와 전주에서 운행하는 향우회 택시 100대를 합쳐 총 611대가 정읍의 대표 관광지인 9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전주 관광객과 전북도민의 발이 돼 정읍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4년 연속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누적 기부액 1200만원을 달성하는 등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금동마을협동조합, 5월 28일 창립총회 개최

김제시는 금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금동마을협동조합'이 오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금동마을협동조합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금동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민 주도형 조직이다. 조합은 마을방앗간과 마을목공소 운영을 비롯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동이용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동마을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정관 제정을 완료했으며,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세 생신상 차리기' 행사 개최

김제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권영세) 노인분과가 지난 22일 죽산면 중남경로당에서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백세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성안노인복지센터, 김제시니어클럽,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김제노인전문요양원, 애린요양원,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0개 기관이 뜻을 모아 함께했다. 이날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위원들은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떡과 과일 등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 노래를 불렀다. 여기에 김제시니어클럽 공명체사업단 파베기카페에서 정성이 가득 담긴 참쌀파베기를 후원해 잔치상을 완성했다. 중남마을 주민들 또한 어르신의 백세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풍성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잔치를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재능기부 봉사활동 전개

'NPS 전주 나누미' 봉사단 구성... 취약 아동 대상 학습지원 나서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가 지역사회 취약 아동들을 위한 재능기부 및 나눔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재능기부 봉사단 'NPS 전주 나누미'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전주완주지사 직원 12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됐으며, 직원들이 가진 재능을 공익적으로 활용해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21일 전주YMCA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느린 학습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설 운영과 아동 교육에 필요한 물품 약 150만 원 상당을 후원하며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앞으로 'NPS 전주 나누미' 봉사단은 매월 조를 편성해 해당 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설명진 전주완주지사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동북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김제시니어클럽 433-3064
심천지사 010-2333-4791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진안지사 433-3064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읍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호치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